

문서번호	국제표준협력과-
보존기간	1년
보고일자	2011.09.

기안	과장	국장	원장

APEC SCSC II 총회 및 관련 회의 참가 및 결과 보고

2011. 09

기 술 표 준 정 책 국
국 제 표 준 협 력 과

1. 출장 개요

o 참가자 : 국제표준협력과 진상언 연구사 등 10명

성명	소속	직위	참석 회의	회의일정
진상언	국제표준협력과	연구사	SCSC 총회(표준교육 프로젝트 결과 발표), 태양광기술 표준 및 적합성 컨퍼런스, 와인규제 세미나	9.15~21
최동근	한국표준협회	책임		
김혜원	기술규제서비스과	사무관	CD(Chemical Dialogue) 회의	9.12~13
민경철	국토해양부	사무관	그린빌딩 컨퍼런스(싱가폴), * 한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	9.12~13
채창우	한국건설기술연구원	위원		
박경순	에너지관리공단	대리	에너지 관리 표준 컨퍼런스, * 한국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	9.13~14
김정환		대리	ICT제품의 에너지효율 컨퍼런스, * 한국의 ICT 제품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	9.12
이상학	한국전자부품연구원	책임		
김종수	식약청	사무관	와인 규제 세미나, * 주류 안전관리 제도 발표	9.18~19
김승환		연구사		

o 주요 일정 : '11.9.12(월) - 9.21(수)

- ICT 제품의 에너지 효율 컨퍼런스 : 9.12(월)
- 그린빌딩 컨퍼런스 : 9.12(월) ~ 13(금) * 개최 : 싱가포르
- 에너지 관리 표준 컨퍼런스 : 9.13(화) ~ 14(수)
- 태양광 기술 표준 및 적합성 컨퍼런스 : 9.15(목) ~ 9.16(금)
- 와인 규제 세미나 : 9.18(일) ~ 19(월)
- APEC 표준적합소위원회(SCSC) 총회 : 9.20(화) ~ 21(수)

2. 주요 활동결과

- 우리나라가 APEC/TILF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'전략적 표준교육 프로젝트' (CTI37/2010T) 3단계 과제 결과 발표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
 - 프로젝트에 참여한 6개국 14개 대학의 시범교육 결과를 보고
 -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제출을 요청 (기한 : '11.10.15일)
- '11 APEC SCSC II 총회 및 관련 컨퍼런스 참가, APEC 회원국 정책동향 수집
 - 무역촉진·국제표준부합화·우수규제관행 등 표준적합성소위원회 7개 분야 추진현황 소개·논의 및 향후계획 결정
 - 에너지 효율 관련 컨퍼런스*가 연계행사로 개최되어 각국의 관련 분야 현황, 규제, 인센티브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됨
 - * 'ICT제품의 에너지효율', '그린빌딩', '에너지관리 시스템', '태양광 기술'
 - * 향후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 및 관련 제품군의 시험·인증에 대한 대응 필요

3. 주요 의제별 회의결과

3.1 APEC SCSC II 회의

1) 개회 및 APEC 사무국 안내

- APEC 사무국 프로젝트 관리팀은 프로젝트 선정 절차 및 신규 도입된 다년도 프로젝트를 소개
 - '11년 2차 예산심의회 결과 제안된 52개 7.5백만불 수요조사/제안서를 심의하여 42개 제안이 3.9백만불 예산으로 승인됨을 보고
 - 다년도 프로젝트 (MYP: Multi-Year Projects) 소개
 - * 그간 APEC 프로젝트는 단년 과제로 진행되었으나, '11년도에 처음으로 역량개발 분야에 다년과제를 도입. 다년과제는 APEC 회원국 중 11개국(과반수)이상의 지지와 최소 2개 이상의 포럼이 협력해야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제약요건을 통해 무분별한 제안을 억제

2) 무역 촉진

- 베트남은 지난 워싱턴 회의에서 합의한 '11년도 공동이행계획 (TF CAP) 9개 부문 20개 시행계획에 대한 진행경과를 발표
- 미국은 무역촉진 TF 회의를 '12년도 1차 회의 (러시아 모스크바)에서 탄소발자국 및 환경라벨링 관련 주제로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
- 일본은 최근 WTO/TBT 위원회 회의결과와 '11.11.8~11일에 개최 예정인 규제협력 워크숍 및 TBT 회의일정을, 중국과 멕시코는 WTO/SPS 회의결과를 보고
-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적합성 인정 동향과 함께, ISO 이사국 및 DEVCO 의장국 진출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에 알림
- APEC에서 고용된 컨설턴트는 표준·적합성분야의 무역촉진비용 측정을 위한 핵심성과지표 (KPI) 측정방안 최종보고서를 발표
 - 최종보고서는 '06~'10년 동안 일본의 IEC (텔레비전분야) 자율행동계획 (국제표준 부합화)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, 말레이시아는 자국 정보를 재확인하여 수정해줄 것을 요청

3)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제표준화활동 참여

- 일본은 '11년도 국제표준 자율부합화계획 (VAP)에 따른 28개 IEC 표준의 부합화에 대해 회신한 18개국의 결과를 발표하고, 미회신 국가는 '11.9.30일까지 VAP 정보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
 - 조사결과 17개국의 부합화율이 90% 이상임을 밝힘 (15개국 100%, 뉴질랜드 93%, 필리핀 90%, 태국 15%)

4) 기술인프라 협력

-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 되지 않음

5) 우수규제관행

- 미국은 개최국으로서 고위관리회의 의장실에서 준비한 APEC 회원국의 우수규제관행과 규제컨버전스 및 협력에 대한 지침을 보고
 -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등은 우수규제관행의 유용성과 APEC의 노력을 지지하며,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줄 것을 요청
- EC (경제위원회) 의장은 규제컨버전스와 협력 확대를 위해 EC에서 추진중인 '사업하기 좋은 기반조성' 이니셔티브,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, EC 웹사이트 개편 등의 내용을 소개
- 미국은 TBT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규제관행을 정리한 최종보고서 (CTI20/2010T)를 발표하고, 우수규제관행이 회원국의 정책결정 시사점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설명

6) 식품 및 제품 안전

- 호주와 중국은 미국 몬타나주 빅스카이에서 '11.5.14~18일'간 개최한 식품안전협력포럼 행사 (CTI 21/2010T) 결과에 대해 보고
 - 행사결과 회원국은 식품안전협력포럼 (FSCF)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,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
- 필리핀은 식품안전 위험-혜택에 대한 과학적 워크숍을 '11.11.22~24일'에 개최할 계획임을 발표하고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
- 미국은 태국 방콕에서 '11.8.25~26일' 동안 APEC 특별지역기구 및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개최한 식품안전 시험역량개발 워크숍 결과를 보고
 - 미국은 '11.11.16~17일'에 예정된 워크숍 계획을 보고하고, 향후 '1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유사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임을 설명
- 페루는 '11.9.12~16일'에 태국 논타부리에서 개최한 해산물의 독소분석 역량강화 워크숍 결과를 보고 (CTI 21/2011T)

7) 전기전자용품 및 식품 관련 상호인정

- 호주는 불참한 브루나이를 대신해 '11.5.23~26일간 미국 일리노이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개최한 EEMRA 공동자문위원회 결과를 보고
 - 이번 JRAC 회의에서는 LED, 에너지효율, PV판넬, 전기차 등의 신기술혁신에 대하여 논의
 - JRAC는 '12.2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SCSC 1차 회의에 연계하여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, 캐나다가 차기 의장국으로 예정됨

8) 교육

- 한국은 TILF 프로젝트 (CTI 37/2010T)로 추진한 표준교육 3단계 시범교육의 추진경과와 최종보고서를 발표함
 - 시범교육에 참여한 6개국 14개 대학(페루 1개, 일본 1개, 중국 1개, 베트남 1개, 인도네시아 2개, 한국 8개)의 사례집을 10월내 발간 예정
 - 회원국은 표준교육이니셔티브 1~3단계를 추진한 노고를 치하하고,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
- 호주는 호주 혁신산업성에서 발간한 '호주 표준 및 적합성 인프라스트럭처' 홍보교육 브로셔를 소개
 - * 브로셔에는 호주의 표준적합성 체계, 정책 및 주요기관 정보가 포함됨
- 중국은 '11.6월말에 항주에서 개최한 ICES (국제표준교육연합)와 WSC Academic Day (표준학술주간)에 대한 행사결과를 보고
- 인도네시아는 '11년에 국내에서 개최된 대학표준화교재 개발 경과, 강사교육, 워크숍, 사례경진대회, 이러닝 등의 경과를 보고하고, '12.4월에 ICES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
- 말레이시아는 '11.12.6~8일 동안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, 중국, 네덜란드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, 개도국의 표준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회원국 참석을 독려

9) 산업계와의 협력

- 미국은 '11.9.18~19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국가별 와인 관련 규제 상호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최한 APEC 와인규제 컨퍼런스 (CTI 40/2010T) 결과를 보고
- 미국은 '11년도 SCSC 관련행사에 1천여명이 넘게 참석했으며, 이중 30% 이상이 산업계 참석자임을 보고. 의장은 SCSC 활동 보고에 이를 포함하고, ABAC에도 보고할 계획임을 설명

10) 신규 프로젝트 및 결과 보고

- 의장은 표준적합성소위 (SCSC)에서 3차 무역투자위원회 (CTI)에 총 8개의 프로젝트를 제안하여, 9.22일에 다른 분과위 프로젝트 제안서와 함께 심의될 예정임을 보고
 - 8개 과제중 전기제품 위험평가 (1위), 그린하우스가스 MLA (2위)가 상위권으로. 스마트그리드 (5위, 7위)가 하위권으로 평가됨
 - 아래 순위는 무역투자위 (CTI) 평가에서 순위가 변경 가능

순위	프로젝트 제목 (제안국, 예산, 후원국)
1	Developing a Harmonised Electrical Equipment Regulatory Risk Assessment Tool (Australia and New Zealand)
2	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(MLA) Readiness Project in Greenhouse Gas Validation/Verification (GHG) (Japan)
3	APEC - Product Safety Incidents Information Sharing System (Malaysia)
4	Supply Chain Visibility (SCV) Feasibility Study [Phase III] (Japan)
5	Workshop on Regulatory Approaches to Smart Grid Investment /Deployment I (The USA)
6	9 th Conferenc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in the field of innovations and related good practices (Russia)
7	Workshop on Regulatory Approaches to Smart Grid Investment/ Deployment II (The USA)
8	Enhancing information aspects and perspectives for APEC streamline to reduc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(Russia)

11) 차기 SCSC 회의 일정

- '12.2월 (러시아 모스크바) 개최 예정이며, '11.12월경 확정·안내

3.2 그린빌딩 컨퍼런스

회의의제 (9.12-13)

- ◇ Session 1 : APEC의 그린빌딩 목표 및 ASEAN과의 협력
- ◇ Session 2 : APEC 회원국의 그린빌딩 건축 추진 사례

- APEC의 그린빌딩 목표 및 ASEAN과의 협력 필요성
 - 그린빌딩 건축분야에서 APEC-ASEAN 국가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·정책적 권고사항을 도출
 - 그린빌딩 건축분야에서 APEC SCSC와 ASEAN 표준 및 품질 자문위원회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그린빌딩 활성화
- 그린빌딩 건축 관련 용어 및 정의에 대한 공통적 이해
 - ‘그린’과 ‘지속가능성’은 동일한 용어이며, 정확하게 ‘그린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이 어려우므로 표준화 필요
 - * 그린빌딩 건축 관련 표준 : ISO 21931, ISO/CD Guide 82 - Guide for addressing sustainability in standards
- APEC 회원국의 그린빌딩 건축사례 연구
 - 그린빌딩 건축에서 Life Cycle 분석을 활용한 인증방법 사례의 접근이 필요하며 환경라벨링과의 연계가 필요
 - 분석대상 국가중 한국, 대만, 러시아에서만 그린제품 사용을 의무화
 - * 호주에서는 공공건물에 LCA 제품 사용을 권고
- APEC 회원국의 그린빌딩 관련 정책 및 사례 소개
 - 한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(한국건설기술 연구원, 채창우 위원)
 - 싱가포르의 그린빌딩 마스터플랜 : '30년까지 80% 그린화 목표 (Mr. TAN Tian Hong, 싱가포르 건설부)
 -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중국, 멕시코의 관련 사례 발표

3.3 ICT 제품의 에너지 효율 컨퍼런스

회의의제 (9.12)

- ◇ Session 1 :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시각
- ◇ Session 2 :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계 시각
- ◇ Session 3 :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일치를 위한 국제표준의 역할
- ◇ Session 4 :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원칙

-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소개
 -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소개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한 참여 요청
 - ICT 제품에 대한 한국의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(에너지관리공단, 김정환)
 - * 대기전력 저감, 대기 전력 경고 표시, 고효율 제품 인증 프로그램 등
 - 대만, 멕시코, 중국, 일본의 관련 정책 소개
-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계 시각
 - IT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관련 자율/강제 법안이 늘어나고 이러한 정책이 IT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음 (AMD)
 - 규제 관련 업계는 일반적으로 임의 프로그램을 선호함 (IBM)
-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일치를 위한 국제표준의 역할
 -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프로그램 사용시 정부 자원 및 업계의 적합성 검사비 절감 등의 이점을 설명 (미국 에너지 스타 기술 고문, 톰 볼리올리)
 - * 에너지 스타는 '12년에 발간 예정인 IEC 62623을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통 표준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음
-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의 원칙
 - 동일한 테스트 절차, 정의,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적합성 평가 비용 절감 가능
 -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무역에 방해가 되는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함

3.4 에너지 관리 시스템 (EMS) 컨퍼런스

회의의제 (9.13-14)

- ◇ Session 1 : ISO 50001의 개요
 - ◇ Session 2 : 성공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
 - ◇ Session 3 : 세계 각국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현 사례
 - ◇ Session 4 :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인정, 인증, 규제
- ISO 50001 개발, 과정, 현재 원칙과 미래
 - ISO 50001은 우수한 계획과 높은 참여도, 효과적인 회의 (web 이용) 등을 통해 ISO의 living lab 기준을 충족
 - 성공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핵심 요소
 - HP 및 Dow의 사례 소개 후, 성공적인 ISO 50001 실행을 위해 다양한 계층별 맞춤 교육·훈련,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
 - 세계 각국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현 사례
 - 한국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발표 (에너지관리공단, 박경순 대리)
 - *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시범사업 소개
 - 중국, 칠레, 일본, 말레이시아의 사례 발표
 -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인정, 인증, 규제
 - ISO 50001의 국제적 인증 호환성 체계 확립을 위해 IAF, ILAC이 노력할 예정이며, 개도국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
 - ISO 50001의 수요 및 도입시 효과
 - 전 세계적으로 ISO 50001의 수요는 광범위할 것으로 예측되고, 가능한 범위까지 실행시 세계 에너지소비의 약 60%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 - *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, 비용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접근방법을 제공 가능함

3.5 태양광 기술 (PV) 표준 및 적합성 컨퍼런스

회의의제 (9.15-16)

- ◇ Session 1 : 태양광 제품에 대한 각국의 정책
- ◇ Session 2 : 태양광 기술 관련 표준 개발 현황
- ◇ Session 3 : 태양광 기술 관련 규제 현황 조사
- ◇ Session 4 : 적합성 평가를 통한 태양광 기술 발전 촉진
- ◇ Session 5 : APEC에서 태양광 제품 무역 촉진

- 태양광 기술 표준과 적합성 평가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
 - 21개국 중 한국, 미국, 일본 등 15개국이 설문 완료
 - 응답국 대부분이 태양광 제품 보급 및 제조에 대하여 차후 10 ~ 20년 동안 정해진 목표가 있음
 - 응답국 대부분이 태양광 제품의 제조보급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
 - 모든 응답국이 자국내 태양광 기술 제품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
 - 대다수 응답국이 자국내 표준 보급에 대해서 외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지만, 국제 표준 보급에는 참여하고 있음
 - 응답국의 절반이 정부가 정한 강제 요구사항 (표준/기술기준)과 제품 구매자가 요구하는 일반 요구사항을 활용하고 있음
- 태양광 기술 관련 제품의 보급 확대 방안
 - 태양광 기술 적용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제품의 가격 절감, 안전성 확보, 신뢰성 개선이 필요함
 - * 태양광 기술 적용 제품 : Concentrated Solar Power (CSP), Solar Water Heating (SWH) Technologies, Photovoltaic (PV) Technologies
- 태양광 기술 적용 제품의 무역촉진을 위한 협력
 - 가급적 국제표준을 도입하고, 국가별 차이(ND)를 최소화
 - 품질 보증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
 - 제품인정, 라벨링, 제품안전기준에 대한 상호 협력

3.6 와인 규제 세미나

회의의제 (9.18-19)

- ◇ Session 1 : APEC 와인 무역과 규제 일관성
 - ◇ Session 2 : 국제기구와 표준의 중요성
 - ◇ Session 3 : 와인규제 우수사례
 - ◇ Session 4 : 현재 관행 및 최근 진척 사항에 대한 공유
- APEC 와인 무역 현황 및 APEC 와인 무역 규제 발표
 - APEC 회원국의 와인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으며, 특히 최근 중국의 와인 소비량이 미국을 상회
 - 와인 무역 규모는 '00년 7억불에서 '10년 18억불로 급증
 - * '10년 전세계 와인 무역 규모는 70억불이며, APEC 회원국은 26% 소비
 - 와인 무역 관련 각국 사례 발표
 - 한국, 칠레, 중국, 일본, 멕시코, 대만, 태국, 페루의 와인 규제 현황
 - * APEC 회원국 대다수가 와인 수입국이며, 인증, 와인 양조 관행, 허가된 첨가제, 식품제조용제, 라벨링 등을 설명
 - * 우리나라는 식약청 김종수 사무관이 주류 안전관리 제도 발표
 - 국제기구와 표준의 중요성
 - 캐나다-미국, 캐나다-EU간의 자유무역협정 사례 소개
 - 세계와인무역그룹 (WWTG) 및 관련 규정 소개
 - APEC 와인 규제 포럼 참가 독려 및 이메일/컨퍼런스콜을 이용한 규제 발전 논의 제안
 - 향후 계획
 - 규제 및 라벨링 관련 정보 교환 활성화
 - 상호 인정을 통해 수출을 위한 인증서 필요성 축소
 - 전자문서 형식의 인증서 수용 추진

6. 관찰 및 평가

- 이번 회의에는 APEC/SCSC 회원국중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20여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석하여 동 회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에너지 효율 관련 컨퍼런스*가 연계행사로 개최되어 각국의 관련 분야 현황, 규제, 인센티브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으며, 회원국들간 정보 및 경험 공유에 큰 관심을 보임
 - 향후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 및 관련 제품군의 시험·인증에 대한 대응 필요
- * 'ICT제품의 에너지효율', '그린빌딩', '에너지관리 시스템', '태양광 기술'
- 한국에서 TILF 프로젝트로 수행한 표준교육 3단계 사업 (시범교육)에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14개 대학이 참가하였음
 - 회원국들은 시범교육의 결과보고서가 역내 대학 표준화교육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의 공헌에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
- * 프로젝트에 참여한 6개국 14개 대학의 시범교육 결과를 보고하고,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 제출을 요청 (기한 : '11.10.15)
- 미국, 호주, 뉴질랜드, 멕시코, 칠레 등 역내 와인 생산국을 중심으로 와인규제 컨퍼런스가 개최되면서, 향후 역내 와인 관련 규제협력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
 - 이에 따라 식약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정립 필요
- 지난 SOM2 (2011.5.14~18, 미국 빅스카이)에서 호주, 중국 등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관련 컨퍼런스가 개최되어, 식품안전 위험관리, 역량개발, 세계은행과의 공동펀드 마련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됨
 - 식품안전분야 역내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약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